

교육현장에서 세대간 갈등과 해소 구조의 탐구

김 태 준
한국교육개발원

본 연구는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극복해야 할 핵심 주제로 진로문제에 대한 학부모의 학력주의 교육 관 해소 및 교실(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의 신뢰회복의 문제를 세대간 가치관의 차이와 극복의 관점에서 두개의 연구를 통하여 다루었다. 연구 1은 진로문제에서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학력주의 성향과 조망수준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자녀보다 부모의 학력주의 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학력주의 성향은 현실지향성 가치 및 조망축소와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기성세대의 가치와는 대립된 미래지향성 가치를 부모자신이 수용하여 조망확대가 이루어질 때 학력주의 성향이 감소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연구 2는 평소 교사와 학생의 상호신뢰와 교실붕괴 상황에 대한 인식 및 조망수준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상대적으로 학생의 교사에 대한 불신이 교사의 학생에 대한 불신보다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사가 규율지향성, 학생은 자율지향성 조망에 구속되어 있을 때 상호신뢰나 이해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편의 가치를 수용하여 조망이 확대되어 있을 때에는 신뢰나 이해수준이 높고 상대의 대안도 잘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세대간 갈등을 '시비'차원보다는 '대안'이나 '문제해결'차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의 교육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간의 다른 세대에 대한 상호 가치 수용 및 교육문제를 바라보는 조망의 확대가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세대간 갈등, 상호신뢰, 조망, 학력주의, 교실붕괴

인생에 있어 성공적인 삶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문제들이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에서 개인의 진로 발달(career development)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

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능력보다는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이에 따른 대학입시제도의 과행으로 말미암아 진로교육은 '진학지도' 혹은 '학생들의 입시성적'과 적당한 대학 및 학과간의 '짜짓기'의 개념으로 동일시되고 있다.

채용, 임금, 선발 등에서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나 부모들의 기대는 학생들에게 ‘꼭 대학을 가야만 한다’는 중압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심지어 대학입시를 위한 초등학교 과외를 부추기기도하고 실업계나 인문계를 막론하고 대학을 향한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강박증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학교현장에서는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교육의 본질적 목적이 훼손됨에 따라 학교에서 교사들은 권위와 자신감을 잃고 학생들은 교사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려 교실붕괴, 교권실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현장에서의 문제들의 근원에는 세대간 상대방의 가치관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생활에 대한 교사와 학생간의 갈등이나 진로문제에 대한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진로문제에서 자녀와 학부모 세대간 가치관의 차이

최근 한국교육개발원(2001)의 학부모 교육관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누구보다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부모들이 자녀의 적성이나 능력보다는 학력이나 출세를 지향하는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전체 응답자 중 62.7%의 학부모가 ‘대학 졸업자보다 고등학교나 전문대 졸업자가 취업이 더 잘된다고 하여도 자녀를 4년제 대학까지 보내겠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학벌을 ‘성공과 출세를 위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꼽고 있다. 이들 결과는 자녀들의 진로선택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출세지향의

태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성인의 학력중시 태도나 가치관은 연령에 따라 세대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정표(2001)의 ‘국민의 학력관에 나타나는 학력의 사회적 함의에 관한 연구’에서는 15~64세 전체 표집의 약 60%가 학력을 개인의 능력 유무를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젊은 층으로 갈수록 감소하여 기성세대들 보다 학력주의 사고 경향이 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진로문제에서 학력중시 태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세대차이나 세대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세대들은 보수나 안정성 가치를 선호하지만, 자녀세대는 진보나 개방적 가치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김명연, 김의철과 박영신(2000)의 우리나라 청소년과 성인간의 세대차이와 유사성에 관한 연구에서도 성인(30, 40, 50대)은 보수지향적 가치를, 청소년(10, 20대)은 진보지향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세대간의 가치 선호는 진로선택 상황에서 학력중시의 태도를 유발할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부모세대가 보수나 안정성 가치를 선호한다고 볼 때, 이는 기성세대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경험에 근거할 때 현실적으로 학력을 대치할 능력의 판단 기준이 없다고 인식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학력중시 태도를 유발한다. 반면 자녀세대는 진보가치나 변화를 추구하므로 학력이 능력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학력을 능력판단의 다양한 기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력중시 태도

는 상대적으로 약화된다고 볼 수 있다.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세대간 가치관의 차이

학교현장에서 기성세대와 청소년 세대의 가치관 차이는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과 불신을 유발한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교실붕괴’ 혹은 ‘학교붕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¹⁾. 교실(학급)붕괴란 한마디로 교실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해지는 상태를 말한다. 학교붕괴라는 용어 역시 수업의 붕괴, 생활지도의 붕괴 등 기존의 학교가 유지해 오던 기능이 학생들로부터 부정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청소년개발원(1999)에서 전국의 교사(218명)와 학생(2,2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사의 87%, 학생의 71%가 학교 붕괴현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와 학생 모두 학교교육의 위기를 실감하고 있으며 이 현상이 우리교육에서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학교나 교실붕괴의 원인이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볼 때, 이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교육정책 혹은 정부에 대한 불신, 학교에 대한 불신, 그리고 교육행위자(교사, 학생, 학부모)간의 불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들 중 최종적인 교수와 학습의 당사자로서 교사와 학생 간 불신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학교붕괴나 교실붕괴의 원인을 교사와 학생 간의 불신 그리고 상호작용 불능 상태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세대차 혹은 청소년 문화와 학교문화의 충돌로 이해될 수 있다(조혜정, 1999; 김민, 2000; 이종각, 2000; 조용환, 2000). 즉, 학교붕괴는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학교라는 틀과 그 내부에서 여전히 변화하지 못하는 기성세대의 의식 수준이 성장세대의 첨단 문화의식과 격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이러한 세대간 문화나 가치 갈등은 상호 신뢰를 위협한다.

최근 전국의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교육개발원(2000)의 조사에 따르면 학생의 약 80%가 교사는 학생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교사들의 학생지도에 대한 ‘열의’나 전문지식에 대한 ‘실력’에 대하여 30% 이상의 학생들이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현장에서 교사세대와 학생세대 간의 이해나 상호 신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학교교육 장면에서 이러한 상호 불신의 기저에는 기성세대로서 교사와 신세대로서 학생 간의 입장 차이에서 유래하는 가치 간 갈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예컨대 학교규율에 대하여 학생과 교사들은 갈등 상태에 있다. 특히, 학생의 복장에 대하여 교사들은 통일되고 단정한 것(교복)을 선호하는 반면 학생들은 자유롭고 개성 있는 것(사복)을 더 선호한다. 교사들 입장에서는 학교생활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질서’라는 가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교복을 선호하게 된다. 반면 학생들은 질서는 자신들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개성’

1)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이들 용어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부터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00; 이성호, 2002 등)

이라는 가치를 판단준거로 사복을 선호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세대간 가치관의 차이와 조망

“세대(generation)”라는 말은 가족의 계통, 한 사회의 연령집단, 역사적 동질 경험집단 등 다양한 중복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Kertzer, 1983). 이들 중에서 특히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세대 간의 세대차이(generation gap) 현상은 주로 “발달적 이해관계(developmental stake hypothesis)”로 설명되어 왔다(Bengtson & Kuypers, 1971). 이 이론에서는 청소년과 부모세대가 자신의 발달적 이해관계 즉, 발달 단계에 따른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 및 이해관계 때문에 태도나 가치관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 Giarrusso, Stallings와 Bengtson(1995)은 “세대간 이해관계(inter-generational stake)”라는 개념으로 이 이론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발달적 혹은 세대간 이해관계로 세대차라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면 이러한 세대간 이해관계는 무엇에 의해서 유발된다고 볼 수 있는가? 세대차이나 갈등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할 수밖에 없다. 특정 세대란 사회, 문화 및 역사적 경험과 이해를 공유하는 사회적 입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이수원(1993)은 특정 사회적 입장에서 유래하는 개인의 가치판단 준거를 사회적 조망이라 명명하고 그 입장에서 유래한 조망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를 사회적 자아 중심성'으로 표현한 바 있다. 조망, 자아 중심성 등의 개념은 원래 물리적 지각

(physical perception)의 발달에 관한 Piaget(1928)의 연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유명한 세산 실험(tree mountain experiment)에서 산봉우리의 모양을 판단할 때 전조작기의 아동들이 자신의 조망에 구속되기 때문에 물리적 대상에 대한 자기중심적 판단을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자아중심성은 이러한 현상이 사회적 지각(social perception) 장면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사회적 자아중심성이란 사회적 대상 인식에서 개인이 사회적으로 유래하는 조망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사회적 조망이란 물리적 지각에서와 같이 지각자가 서있는 위치나 방향과 같은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암묵적 배경(tactic background)인 사회적 지위나 역할, 세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Hundeide, 1985). 따라서 물리적 지각에서의 조망과 다른 점은 연령에 관계없이 사회적 지위나 역할 및 세대와 같은 사회·문화·역사적 맥락에 따라 작용하게 되므로 성인이라도 지각이나 판단의 오류를 범하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

한편 이수원과 김태준(1992)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갈등상황에서 서로 다른 사회적 입장에서 지향하는 대립적인 가치들에 대하여 하나의 가치보다는 두 가지 가치 준거를 수용하는 사람들이 갈등상황에 대한 흑백논리나 갈등을 심화시키는 판단보다는 갈등해결을 유도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더욱 많이 제공하며 사회적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세대에 속해 있는 개인이 세대간 갈등상황에서 사회적 입장, 상황, 처지 등을 초월하여 다각적인 준거를 가질 때 갈등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상기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최근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부모의 학력 중심 교육관이나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 불신 풍조가 세대간 이해관계로 인해 나타나는 개인의 ‘조망’ 축소가 그 원인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렇게 볼 때, 교육현장에서 학생, 교사 및 학부모들의 세대 간 조망 즉, 가치관단 준거들은 무엇이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판단 준거가 현실인식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학생과 교사 간의 갈등이나 학생과 학부모 간의 갈등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교사와 학생, 자녀와 부모 세대차를 빚어내는 갈등의 생성과정이나 메커니즘을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핵심적인 교육 주체들이 어떤 교육의 비전을 공유해야 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1에서는 진로문제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세대차를, 연구 2에서는 학교붕괴에 대한 인식에서 교사와 학생들 간의 세대차를 대립된 세대간, 혹은 사회적 입장 간 갈등의 관점에서 다루고 그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1

방법

피험자

연구 1은 서울 경기지역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579명과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들 500명 총 1079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이 이루어졌다. 학생 설문조사는 지역, 계열별 특성을 고려하여 무선 표집한 30개 고등학교에서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학부모 설문조사는 학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무선 표집한 60개 학교에 의뢰하여 그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표 1-1. 성 X 범주별 피험자 빈도(비율)

범주	자녀	부모	전체
성			
남	301 (52.0%)	252 (50.4%)	553 (51.3%)
여	278 (48.0%)	248 (49.6%)	526 (48.7%)
전체	579 (100.0%)	500 (100.0%)	1079 (100.0%)

표 1-1에서 볼 수 있듯이 두 범주집단별 남녀 비율에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한편 부모집단에서 연령별 분포는 20대 이하가 6.1%, 30대가 35.9%, 40대가 53.5%, 50대 이상이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3·40대 주류를 이루었다.

부모와 자녀의 학력주의 성향 측정

부모와 자녀 간에 학력주의 성향의 세대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취업과 학력, 사회발전과 학력간의 관계에 대한 부모집단과 자녀집단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첫째, 취업과 학력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녀(부모)에게 ‘4년제 대학보다 전문대학 졸업자가, 전문대학 졸업자보

다도 고등학교 졸업자가 취업이 더 잘 된다면 당신은 (당신의 자녀를) 어느 학교까지 진학하겠습니까?(보내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고등학교까지(1), 전문대학까지(2), 4년제 대학까지(3)의 3가지 선택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둘째, 사회발전과 학력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4년제 대학 졸업자, 석사, 박사 등 학력이 높은 사람이 많을수록 사회가 발전한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진로선택 상황에 대한 태도 및 판단 준거 측정

본 연구는 진로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자녀와 부모 간의 세대 차이를 유발하는 원인이 두 집단 간의 가치판단 준거 및 조망의 차이 때문이라고 가정하였다. 자녀와 부모 두 집단 간 가치판단 준거 및 조망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현실지향 가치와 미래지향 가치가 갈등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그 시나리오에서 현실지향 가치를 선호하는 영수의 아버지와 미래지향 가치를 선호하는 영수의 행동에 관한 인상을 판단시켰다. 갈등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영수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집안의 장남이자 외동아들이다. 영수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지금까지 전교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다. 평소 영수의 부모님은 영수가 수재라고 생각하고 일류대학에 들어가

서 사회의 최고 위치에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길 원했다. 그러나 최근 영수의 집은 영수의 진로 문제에 대하여 가족간의 반목과 갈등으로 이전의 행복했던 광경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영수는 지금이야말로 자신이 평소 꿈꾸어 왔던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 위한 계획을 실천에 옮길 때라고 생각했다. 전부터 영수는 영어회화, 서류준비, 선생님과 상담 등 외국의 비행학교에 입학할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었으며 몇 개 기관에서 며칠 전에 입학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이미 영수는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마치고 자퇴할 결심을 말하였지만, 평소 아버지의 완고한 성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어머님도 그 사실을 어느 정도는 눈치 채고 있었지만 영수가 당장 학교까지 그만 둘 결심을 하고 있을 줄은 모르고 있었다. 영수의 결석이 잦아지자 선생님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영수의 결심은 단호했고 영수의 아버지는 최근 영수의 돌연한 행동에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영수를 고시원에 집어넣고 외부와의 접촉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다.

첫째, 이 주제에 대한 피험자들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등장인물인 영수와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선호도를 매우 싫다(1)에서 매우 좋다(7)의 7점 척도에서 측정하였다. 둘째, 진로선택 상황에서 자녀와 부모들의 판단준거가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현실지향 가치와 미래지향가치를 대표하는 형용사를 이수원과 이지연(1996)의 연구에서 사용한 보수와 진보 성격특성들을 기초로 선정하여 의미 미분척도로 제작하였다.

이때 현실지향 준거가치는 안전하다 - 불안하다, 예측할 수 있다 - 예측할 수 없다, 원칙적이다 - 무원칙적이다, 신중하다 - 성급하다, 미래지향 준거가치는 개방적이다 - 폐쇄적이다, 창조적이다 - 비창조적이다, 다채롭다 - 상투적이다, 미래지향적이다 - 현상 유지적이다가 각각 4개의 의미분척도의 양극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앞서 피험자들에게 제시된 시나리오에서 영수와 아버지의 행동이 어떤지를 현실지향성과 미래지향성 차원의 의미분척도 상에서 반복 측정하였다. 평정은 1에서 7의 7점 척도에서 이루어졌으며 평정 순서는 평정자 간에서 무선적이 되도록 하여 순서효과를 배제시켰다.

한편 두 판단 준거에 대한 가치지향성 점수는 위의 반응치들을 가지고 현실지향성 및 미래지향성차원에서 변별값을 산출함으로써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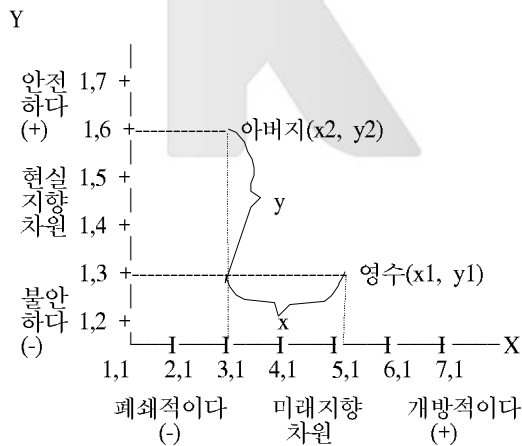


그림 1. 아버지와 영수의 행동판단에서 준거 가치 차원

【그림 1】에서 y는 아버지와 영수의 행동을 현실지향성차원에서 변별하는 정도를 나

타내며, x는 미래지향성차원에서 변별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때 각 차원에서의 변별값이 클수록 그 가치(현실지향성, 혹은 미래지향성)를 가지고 아버지와 영수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이 된다. 각 준거차원 변별값의 구체적 계산 절차는 이수원과 박영석(1988)의 방법을 따랐다.

결 과

부모와 자녀의 학력주의 성향 차이

전반적으로 취업과 학력, 학력과 사회발전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부모가 자녀보다 학력주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는 먼저 취업과 학력의 관계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표 1-2. 취업과 학력의 관계에 대한 인식 (빈도)

구분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계
자녀	243 (41.8%)	195 (33.6%)	143 (24.6%)	581 (100.0%)
부모	43 (8.7%)	129 (26.1%)	322 (65.2%)	494 (100.0%)
계	286 (26.6%)	324 (30.1%)	465 (43.3%)	1075 (100.0%)

* $\chi^2=216.588$ $df=2$ $p=.000$

표 1-2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집단의 65.2%가 취업에서 고등학교나 전문대학 졸업자가 유리하더라도 4년제 대학을 가야한다고 응답한 반면 자녀집단에서는 24.6%가 응답하였다. 또한 부모집단은 저학력으로 갈수록 응답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자녀집단은 응답자가 체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학력과 사회발전의 관계에 대한 인식(빈도)

구분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관계없다	다소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계
자녀	20 (3.4%)	146 (25.1%)	247 (42.4%)	90 (15.5%)	79 (13.6%)	582 (100.0%)
부모	11 (2.2%)	181 (36.2%)	194 (38.8%)	90 (18.0%)	24 (4.8%)	500 (100.0%)
계	31 (2.9%)	327 (30.2%)	441 (40.8%)	180 (16.6%)	103 (9.5%)	1082 (100.0%)

* $\chi^2=36.090$ $df=4$ $p= .000$

한편 표 1-3에서 볼 수 있듯이, 학력과 사회발전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서는 부모집단이 자녀집단 보다 긍정적 응답자들이 많은 반면, 부정적 응답자들은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 간 준거가치 및 조망의 차이

진로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차를 유발하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진로선택 상황을 시나리오로 제시하고 그들의 판단준거가치 및 조망을 측정하였다.

표 1-4. 시나리오 인물에 대한 태도

	영수	아버지
자녀 (N=581)	5.150	3.164
부모 (N=412)	4.867	3.481

매우 싫다(1) - 매우 좋다(7)

먼저 시나리오 인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는데 부모와 자녀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 영수와 아버지의 행동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 1-4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집단은 자녀집단 보다 영수 아버지의 행동을

더 선호하는 반면 영수의 행동은 그 반대로 나타났다(등장인물과 집단의 상호작용효과; $F(1, 991)=26.41, p<.000$). 한편 두 집단 모두 아버지보다는 영수의 행동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등장인물의 주 효과; $F(1, 991)=833.41, p<.000$). 이러한 결과는 피험자들이 아버지의 현실적, 출세 지향적인 진로 선택보다는 미래나 자기실현을 지향하는 진로선택을 더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피험자들이 이러한 태도를 갖게 만든 그들의 판단 준거가치 및 조망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현실지향과 미래지향의 대립적인 가치를 진로선택 상황에서 얼마나 독립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이 측정치는 앞서 진로문제에 대한 시나리오에서 등장인물 영수와 아버지의 행동을 현실지향성과 미래지향성의 두 독립된 판단차원에서 인상을 판단하게 하고 각 차원에서의 변별값을 계산한 것이다. 아래 표는 집단별로 현실 준거가치와 미래 준거가치 차원에서의 변별값을 제시한 것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집단은 자녀집단에 비하여 현실 준거가치 변별값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F(1, 976)=2.84, ns$, 미래 준

표 1-5. 집단별 준거가치 변별값(조망)

	현실지향성	미래지향성
자녀	1.711	-.732
부모	1.831	-1.202

거가치 변별값에서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F(1, 954)=19.42, p<.000$. 이러한 결과는 진로 문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부모들은 자녀들 보다 미래지향 가치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자녀들이 부모들 보다 조망이 확대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현실과 미래지향가치 두 차원의 변별값을 합친 값을 조망확대지수로 간주하고 집단간 차이를 분석했을 때에도 나타났다. 즉, 자녀집단이 부모집단보다 조망확대수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조망확대지수; 자녀집단; .979, 부모집단; .630, 집단간 효과; $F(1, 931)=14.53, p<.000$). 이러한 결과는 자녀들이 부모들보다 현실과 미래를 모두 고려하는 차원에서 진로선택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망수준에 따른 학력주의 성향의 차이

부모들의 경우 학력주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진로선택 상황의 판단에서 조망확대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일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직접 검토하기 위하여 개인별 조망수준에 따른 학력주의 성향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먼저 앞서 취업과 학력 및 학력과 사회발전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응답한 점수들을 가지고 학력주의 성향지수를 산출하였다. 첫째, 취업과 학력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는

고등학교 보다는 전문대학, 전문대학 보다는 4년제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고 응답할수록 학력주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간주하고 고등학교는 1점, 전문대학은 2점, 4년제 대학은 3점을 부여하였다. 둘째, 학력과 사회발전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는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사회가 발전할 것이다’는 주장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로 응답할수록 학력주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고 개인별 점수를 산출하였다.

한편 현실지향 가치와 미래지향 가치 준거 차원 모두를 잘 활용하는 사람(조망 수준이 높은 사람)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조망 수준이 낮은 사람)을 분류하기 위하여 앞의 조망확대지수의 표준점수를 산출하여 전체 분포에서 중앙값($z=0.00$)을 기준으로 조망수준 상하집단을 나누었다. 표 1-6, 표 1-7는 학력과 취업 및 학력과 사회발전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각각에서 조망수준 상하집단 별 학력주의 성향지수를 비교한 것이다.

표 1-6. 조망수준별 학력주의 성향지수

	취업과 학력관계
상(N=424)	2.054
하(N=498)	2.217

표 1-7. 조망수준별 학력과 사회발전의 관계 인식

	학력과 사회발전의 관계
상(N=425)	2.887
하(N=504)	3.073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조망수준 상 집단은 하 집단 보다 취업과 학력 관계 및 학력과 사

회발전의 관계 모두에서 학력주의 성향지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취업과 학력; $F(1, 920) = 8.87, p < .01$, 학력과 사회발전; $F(1, 927) = 8.22, p < .01$). 이러한 결과는 학력주의 성향이 진로 선택 상황 판단에서 현실과 미래 가치준거의 수용 정도 즉, 조망 확대 및 축소와 관련이 있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연구 2

방법

피험자

연구 2는 경기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들 458명과 교사 419명 총 877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이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지역 별 분포를 고려하여 무선 표집한 24개 중학교에서 남녀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때 교사는 연령별 안배를 고려하였다.

표 2-1. 성 X 집단별 피험자 빈도(비율)

성 \ 집단	교사	학생	전체
남	109 (26.0%)	234 (51.1%)	343 (39.1%)
여	310 (74.0%)	224 (48.9%)	534 (60.9%)
전체	419 (100.0%)	458 (100.0%)	877 (100.0%)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두 범주집단별 남녀 비율에서 학생들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교사들은 남자보다 여자의 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사집단에서 연령별

분포는 20대가 33.3%, 30대가 29.3%, 40대가 27.7%, 50대 이상이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학생 간 상호 신뢰 및 이해도 측정

교육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첫째, 피험자들의 교사/학생 간의 상호 신뢰에 대한 지각을 알아보았다. 상호신뢰에 대한 지각은 ‘평소 학생들은 교사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과 ‘평소 교사들은 학생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두 질문에 대하여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1)에서 매우 신뢰한다(4)의 4점 척도에서 피험자들이 응답하도록 하였다.

둘째, 가상적인 교실 붕괴상황에 대한 등장인물의 상호 부당성 및 이해정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가 제시되었다.

“교사의 강의에 귀를 기울이는 학생은 앞자리의 일부이고 몇 몇은 잠을 자거나 만화책을 보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수업도중 무단으로 교실을 출입하거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고 있다. 수업시간에 웬만한 고등학교의 교실에서는 자도 체벌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자는 학생들 한사람 한사람의 이름을 교사가 수행평가지에 체크한다고 한다. 또한 걸리는 아이들은 자신들이 이일로 인해 찍힌 것은 아닌가 하고 고민한다고 한다. 게다가 이에 대해 부모님들은 자기의 자식 보다는 교사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교사들에 대한 반감을 쌓아가고 있다.”

-K일보, 2003년 5월 6일자 사설, 요즘 학교,

요즘 교실에 대한 한탄 중에서-

이 사례를 읽고 피험자들은 등장인물인 교사와 학생의 행동에 대하여 매우 부당하다(1)에서 전혀 부당하지 않다(4)와 전혀 이해할 수 없다(1)에서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4)의 두 가지 4점 척도에서 응답하였다.

학교붕괴 원인 및 대책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측정

첫째, 학교붕괴의 원인지각은 ‘학교붕괴현상은 어디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교사 권위실추, 학생의 자율무시, 학부모의 협조나 이해 부족, 기타의 네 가지 선택지들 중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하나만을 피험자들이 선택하도록 하였다. 둘째, 학교붕괴에 대한 대책은 ‘학교붕괴해결을 위해 학생들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다음 두 가지라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현재의 교칙준수 및 실천, 현 교칙의 현실적 수정과 촉구, 잘 모르겠다의 세 가지 선택지들을 제시하고 선택하게 하였다.

학교붕괴 문제에 대한 태도 및 판단 준거 측정

본 연구는 학교붕괴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세대 차이를 유발하는 원인이 두 집단 간의 가치판단 준거 및 조망의 차이 때문이라고 가정하였다. 교사와 학생 두 집단간 가치판단 준거 및 조망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규율과 자율이 갈등하는 시나리오

를 제시하고 그 시나리오에서 규율을 중시하는 교사들과 자율을 중시하는 학생들의 행동에 관한 인상을 판단시켰다. 갈등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최근 H 학교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실붕괴, 학교붕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사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상호 입장이 대립되었는데 주로 교사들은 현재 교칙의 준수 및 학생들의 준법의식 고양, 교권 강화를 역설한 반면, 학생들은 비현실적인 교칙 및 수업방식 개선 등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생총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총학생회가 교칙개정의 초안을 만들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검토·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칙을 개정하더라도 교사들이 초안을 만들어야 하며 그 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이 주제에 대한 피험자들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등장인물인 교사와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선호도를 매우 싫다(1)에서 매우 좋다(7)의 7점 척도에서 측정하였다.

둘째, 학교붕괴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판단준거가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규율과 자율을 대표하는 형용사를 세대간 대립적인 가치차원으로서 보수와 진보(이수원 등, 1996), 질서와 개성(이수원과 박광엽, 1989), 복종과 자율(신현숙과 이해경, 2000; 신현숙, 2003)차원의 각 특성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와 기술차원의 평정치에서 상위 점수를 획득한 특성들을 기초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의미미분척

도로 제작하였다.

이때 규율지향 준거가치는 질서 있다 - 질서 없다, 안정적이다 - 불안정하다, 성실하다 - 불성실하다, 원칙적이다 - 무원칙적이다가, 자율지향 준거가치는 독립적이다 - 의존적이다, 개성 있다 - 개성 없다, 창조적이다 - 비창조적이다, 적극적이다 - 소극적이다가 각각 4개의 의미미분척도의 양극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앞서 피험자들에게 제시된 시나리오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행동이 어떤지를 규율지향성과 자율지향성 차원의 의미미분척도 상에서 반복 측정하였다. 평정은 1에서 7의 7점 척도에서 이루어졌으며 평정순서는 평정자간에서 무선적이 되도록 하여 순서효과를 배제시켰다.

한편 두 판단 준거에 대한 가치지향성 점수는 위의 반응치들을 가지고 규율지향성 및 자율지향성차원에서 변별값을 산출함으로써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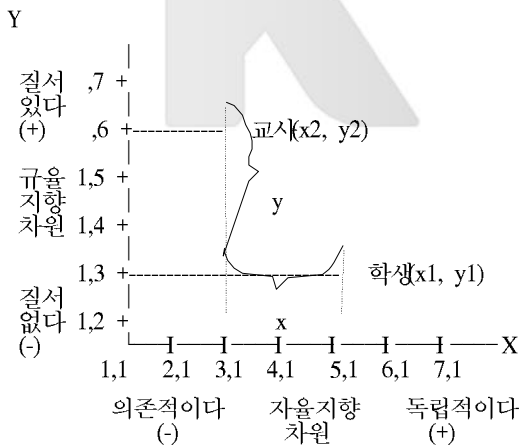


그림 2. 교사와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인상 판단에서 준거가치 차원

【그림 2】에서 y는 교사와 학생들의 행동

을 규율지향성차원에서 변별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x는 자율지향성차원에서 변별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때 각 차원에서의 변별값이 클수록 그 가치(규율지향성, 혹은 자율지향성)를 가지고 교사와 학생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이 된다. 각 준거차원 변별값의 구체적 계산 절차는 이수원과 박영석(1988)의 방법을 따랐다.

결 과

교사/학생 간 상호신뢰 및 이해차이

평소 교사/학생 간의 상호 신뢰에 대한 시각에서 교사집단과 학생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표 2-2는 두 집단의 교사/학생 간의 상호 신뢰에 대한 시각을 나타낸 것이다.

표 2-2. 교사/학생간의 상호 신뢰에 대한 시각

	학생의 교사에 대한 신뢰	교사의 학생에 대한 신뢰
교사집단 (N=404)	2.752	2.923
학생집단 (N=386)	2.767	2.637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1) - 매우 신뢰한다(4)

표에 나와 있는 점수들을 가지고 집단 (2) × 신뢰대상(2)의 2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과 신뢰대상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와, 교사집단은 학생들이 교사를 신뢰하는 것보다 교사들이 학생을 더 신뢰한다고 생각하지만 학생집단은 이와 반대로 학생들이 교사를 더 신뢰한다고 생각했다, $F(1, 788) = 29.43, p < .000$. 이러한 결과는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 신뢰지각에서 자신의 입장에 따라 유리한 방향으로 편향된 지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교사/학생간의 상호신뢰가 대립된 구조나 더 나아가 불신구조로 발전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신뢰대상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개별적으로 분석했을 때, 학생의 교사에 대한 신뢰점수들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F(1, 824) = 1.16, ns$. 반면, 교사의 학생에 대한 신뢰점수는 교사집단보다 학생집단에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1, 837) = 99.12, p < .000$. 이러한 결과는 평소 학생이 교사를 신뢰한다는 것에는 두 집단 간의 인식 차이가 없지만, 교사가 학생을 신뢰한다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학생집단은 교사집단보다 평소 교사가 학생을 신뢰한다고 지각하지 않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특히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불신은 학교나 교실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아무리 교사가 노력하더라도 학생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표 2-3. 집단에 따른 등장인물의 정당성

	학생	교사
교사집단	1.592	2.686
학생집단	2.220	2.389

매우 부당하다(1) - 전혀 부당하지 않다(4)

한편 가상적인 교실붕괴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 및 이해 판단에서도 교사집단과 학생집단 간의 인식차이가 나타났다. 표 2-3은 교사와 학생집단의 등

장인물에 대한 정당성 판단점수를 제시한 것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등장인물인 학생의 경우 교사집단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반면 학생집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교사의 경우는 학생집단보다 교사집단이 더욱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집단과 판단대상의 상호작용 효과; $F(1, 801) = 126.69, p < .000$).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표 2-4. 집단에 따른 등장인물의 이해도

	학생	교사
교사집단	2.499	3.079
학생집단	2.638	2.611

전혀 이해할 수 없다(1) -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4)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등장인물인 학생의 경우 학생집단은 교사집단보다 이해도가 더 높게 나타난 반면, 교사에 대한 판단에서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집단과 판단대상의 상호작용 효과; $F(1, 816) = 67.54, p < .000$).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들이 자신의 사회적 입장에 따라 등장인물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사와 학생의 학교붕괴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인식 차이

학교붕괴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도 집단간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는데 표 2-5에서 볼 수 있듯이 교사는 학교붕괴의 원인을 교사의 권위 실추가 주 원인이라고 보는 반면 학생들은 학생의 자율성 무시를 주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교사와 학생의 학교붕괴 원인지각

	교사	학생	계
교사 권위	255	117	372
실추	(60.7%)	(25.4%)	(42.3%)
학생	41	231	272
자율 무시	(9.8%)	(50.2%)	(30.9%)
학부모 협조	54	72	126
부족	(12.9%)	(15.7%)	(14.3%)
기타	70	40	110
	(16.7%)	(8.7%)	(12.5%)
계	420	460	880
	(100.0%)	(100.0%)	(100.0%)

* $\chi^2=193.248$ $df=3$ $p=.000$

한편 학교붕괴의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서 현재 교칙의 준수 및 실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사가 학생보다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교칙을 현실화하고 수정하는 것을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사보다 학생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교사와 학생의 학교붕괴 해결을 위한 대책

	교사	학생	계
현 교칙준수 및 실천	156	97	253
	(37.5%)	(21.1%)	(28.9%)
현 교칙현실화 및 수정 촉구	203	296	499
	(48.8%)	(64.5%)	(57.0%)
잘 모르겠다.	57	66	123
	(13.7%)	(14.4%)	(14.1%)
계	416	459	875
	(100.0%)	(100.0%)	(100.0%)

* $\chi^2=29.709$ $df=2$ $p=.000$

교사와 학생의 판단 준거가치 및 조망 차이

학교붕괴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세대차를 유발하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정상화를 주제로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그들의 판단준거가치 및 조망을 측정하였다.

먼저 시나리오 인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는데 교사와 학생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 2-7에서 볼 수 있듯이, 교사집단은 학생집단 보다 H 학교 교사들의 행동을 더 선호하는 반면 학생들의 행동은 그 반대로 나타났다(집단과 시나리오 인물의 상호작용 효과; $F(1, 858)=61.40$, $p<.000$). 특히, 이러한 경향은 교사집단보다 학생집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의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앞서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평소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불신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표 2-7. 집단별 시나리오 인물에 대한 태도

	교사	학생
교사집단 (N=401)	4.671	4.539
학생집단 (N=459)	3.756	4.702

매우 싫다(1) - 매우 좋다(7)

한편 피험자들이 이러한 태도를 갖게 만든 그들의 판단 준거가치 및 조망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규율지향과 자율지향의 대립적인 가치를 학교붕괴 문제에 얼마나 적용하고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이 측정치는 앞서 학교붕괴 문제에 대한 시나리오에서 등장인물 교사와 학생들의 행동을 규율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의 두 독립된 판단차원에서 인상을 판단하

계 하고 각 차원에서의 변별값을 계산한 것이다. 아래 표는 집단별로 규율지향 가치와 자율지향 준거가치 차원에서의 변별값을 제시한 것이다.

표 2-8. 집단별 준거가치 변별값(조망)

	자율지향성	규율지향성
교사집단 (N=333)	1.307	1.124
학생집단 (N=365)	1.886	.780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규율지향성차원 보다 자율지향성 변별값이 두 집단 모두에서 크게 나타나 사람들이 학교붕괴 문제를 바라볼 때 전반적으로는 규율보다는 자율지향성 조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조망의 주효과; $F(1, 696)=34.67, p<.000$).

한편, 교사집단은 학생집단에 비하여 규율지향성차원 변별값에서는 크지만 자율지향성차원 변별값에서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집단과 조망의 상호작용 효과; $F(1, 696)=17.77, p<.000$). 이러한 결과는 학교붕괴 문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교사들은 학생들 보다 규율지향성 조망을, 학생들은 교사들보다 자율지향성 조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망수준에 따른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 신뢰 및 이해의 차이

조망수준에 따른 효과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앞의 그림 2의 규율지향 가치차원 변별값(y)과 자율지향 가치차원 변별값(x)에서 각각 표준점수를 산출하여 그 분포에서 y의 중앙

값($z=0.01$)과 x의 중앙값($z=0.00$)을 기준으로 피험자들을 상하 두 집단으로 각각 나누었다. 그리하여 전체 피험자들을 y값도 높고 x값도 높은 집단(HH), y값은 높고 x값은 낮은 집단(HL), y값은 낮고 x값은 높은 집단(LH), y값도 낮고 x값도 낮은 집단(LL)의 4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LL집단 즉, 규율차원과 자율차원 변별값이 모두 낮은 집단은 교사와 학생의 행동을 양쪽 가치 차원에서 모두 변별하지 못하는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 피험자들은 교사와 학생의 행동에 대하여 어떤 조망도 갖고 있지 않은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주어진 태도대상에 대하여 뚜렷한 조망이 없는 집단이다. LH집단 즉, 규율차원 변별값은 낮지만 자율차원 변별값이 높은 집단은 교사와 학생의 행동을 규율보다는 자율차원에서 변별하는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 피험자들은 교사와 학생의 행동을 자율지향성 조망을 가지고 판단하는 집단이다. HL집단 즉, 규율차원 변별값은 높지만 자율차원 변별값이 낮은 집단은 교사와 학생의 행동을 자율보다는 규율차원에서 변별하는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 피험자들은 교사와 학생의 행동을 규율지향성 조망을 가지고 판단하는 집단이다. 한편 HH집단 즉, 규율차원 변별값도 높고 자율차원 변별값도 높은 집단은 교사와 학생의 행동을 양쪽 가치차원에서 모두 변별하는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 피험자들은 양쪽의 조망을 동시에 갖고 교사와 학생의 행동을 바라보는 집단이다.

그런데 교사집단에서 HH집단과 더불어 LH집단 역시 주어진 태도대상에 대하여 조망이 확대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LH집단은 교사들의 규율지향성 가치와는 대립

된 자율지향성 가치 조망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학생집단에서 HL집단도 학생들의 자율지향성 가치와는 대립된 규율지향성 가치 조망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조망이 확대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료의 분석에서는 교사집단의 경우 HH집단과 LH집단을, 학생집단의 경우 HH집단과 HL집단을 조망확대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교사의 경우 HL집단과 학생의 경우 LH집단은 조망축소집단으로 분류하여 최종적으로 조망확대, 조망축소, 무 조망의 세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2-9는 교사 집단에서 조망수준별 교사/학생의 상호 신뢰지각 점수를 제시한 것이다.

표 2-9. 조망수준별 교사/학생의 상호 신뢰 (교사집단)

	학생의 교사에 대한 신뢰	교사의 학생에 대한 신뢰
조망확대	2.809	2.914
조망축소	2.736	2.964
무 조망	2.482	2.875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1) - 매우 신뢰한다(4)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의 교사에 대한 신뢰점수 보다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신뢰점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신뢰대상의 주 효과; $F(1, 315)=42.26, p<.000$). 이는 신뢰지각이 교사의 입장을 반영하여 한 쪽으로 편향된 방향으로 교사에게는 높은 신뢰, 학생에게는 낮은 신뢰를 보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무 조망 집단에서 조망확대 집단으로 갈수록 전반적으로 신뢰점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조망수준의 주 효과; $F(2, 315)=3.18,$

$p<.043$). 또한 조망확대집단으로 갈수록 학생이 교사에 대한 신뢰점수보다 교사가 학생에 대한 신뢰점수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망수준과 신뢰대상의 상호작용 효과; $F(2, 315)=4.75, p<.009$). 이러한 결과는 조망확대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하여 교사와 학생 두 대상의 신뢰지각에서 편향된 자신(교사)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생집단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 2-10는 학생 집단에서 조망수준별 교사/학생의 상호 신뢰지각 점수를 제시한 것이다.

표 2-10. 조망수준별 교사/학생의 상호 신뢰 (학생집단)

	학생의 교사에 대한 신뢰	교사의 학생에 대한 신뢰
조망확대	2.801	2.651
조망축소	2.646	2.537
무 조망	2.967	2.900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1) - 매우 신뢰한다(4)

표에 나와 있는 점수들을 가지고 조망수준(3) × 신뢰대상(2)의 이원 변량분석 결과, 조망수준의 주 효과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 305)=4.81, p<.009$. 따라서 다른 집단에 비하여 조망축소집단이 전반적인 신뢰점수가 떨어진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조망수준에 따른 태도구조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학생과 교사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 판단과 이해정도를 알아보았다. 아래 표 2-11은 교사집단에서 조망수준에 따른 등

표 2-11. 조망수준에 따른 등장인물의 정당성과 이해 정도(교사집단)

	학생		교사	
	정당성	이해도	정당성	이해도
조망확대	1.556	2.556	2.641	3.144
조망축소	1.670	2.464	2.786	3.098
무 조망	1.554	2.482	2.768	3.036

정당성 : 매우 부당하다(1) - 전혀 부당하지 않다(4)

이해도 : 전혀 이해할 수 없다(1) -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4)

장인물의 정당성 판단과 이해정도를 제시한 것이다.

표 2-11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등장인물의 정당성보다는 이해 점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판단차원의 주 효과; $F(1, 318)=204.05, p<.000$). 한편 등장인물인 학생보다는 교사에 대한 점수가 크게 나와, 교사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등장인물들을 정당하다고 판단하거나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판단 대상의 주 효과; $F(1, 318)=284.90, p<.000$). 마지막으로 판단차원(정당성, 이해도)과 판단대상(학생, 교사)의 2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왔다, $F(1, 318)=71.91, p<.000$. 즉, 등장인물인 학생에 대해서는 이해도에 비해 정당성 점수가 낮은 반면, 교사에 대해서는 판단차원 점수들 간의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등장인물인 학생은 정당하지 못하며,

따라서 이해할 수 없다고 지각하는 반면, 교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인식을 하지 않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조망에 따른 어떤 효과도 산출되지 않았는데, 이는 시나리오 판단에서 등장인물인 학생의 행동에 비하여 교사의 행동이 그리 부정적으로 묘사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피험자들이 교사일 때는 시나리오 인물 평가에서 큰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조망수준에 관계없이 세 집단 모두 동일한 지각을 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앞의 결과와는 달리 피험자들이 학생일 경우에는 조망수준에 따른 효과들이 나타났다. 표 2-12는 학생집단에서 조망수준에 따른 등장인물의 정당성 판단과 이해정도를 제시한 것이다.

표에 나와 있는 점수들을 가지고 조망수준

표 2-12. 조망수준에 따른 등장인물의 정당성과 이해 정도(학생집단)

	학생		교사	
	정당성	이해도	정당성	이해도
조망확대	2.180	2.534	2.292	2.702
조망축소	2.214	2.810	2.488	2.464
무 조망	2.385	2.692	2.442	2.558

정당성 : 매우 부당하다(1) - 전혀 부당하지 않다(4)

이해도 : 전혀 이해할 수 없다(1) -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4)

(3)을 피험자 간 변인으로 하고, 판단차원(2)과 판단대상(2)을 피험자 내 변인으로 한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판단차원의 주 효과 및 판단차원과 판단대상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와 앞서 교사집단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학생집단의 경우 자신(학생)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등장인물들을 정당하다고 판단하거나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 효과; $F(1, 294)=33.42, p<.000$, 상호작용효과; $F(1, 294)=8.02, p<.005$).

한편, 조망수준과 판단차원과 판단대상의 3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F(2, 294)=6.60, p<.002$. 표 2-12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에 대한 판단에서 조망확대 집단의 경우 정당성과 이해도의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조망축소 및 무 조망 집단은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망확대 집단은 학생의 행동의 정당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따라서 이해도 낮은 반면 조망축소 및 무 조망 집단은 정당성은 낮아도 이해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조망확대 집단에 비하여 두 집단은 자신(학생)의 입장에 유리한 방향

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교사에 대한 판단에서는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즉, 조망확대 집단의 경우 교사 행동의 정당성은 낮게 이해도는 높게 나타난 반면 조망축소 및 무 조망 집단은 그러한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망축소 및 무 조망 집단은 정당성과 이해도의 차이를 두지 않고 있지만, 조망확대 집단은 교사의 행동의 정당성이 낮더라도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자신(학생)의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교사를 판단하려는 경향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학생의 경우 조망축소나 무 조망 집단에 비하여 조망확대 집단은 정당성과 이해차원을 분화하여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망수준에 따른 교사와 학생의 학교붕괴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인식 차이

조망수준에 따라서 학교붕괴의 원인이 무

표 2-13. 조망수준별 교사와 학생의 학교붕괴 원인지각

	교 사				학 생			
	조망확대	조망축소	무 조망	계	조망확대	조망축소	무 조망	계
교사 권위 실추	85 (55.2%)	83 (70.9%)	35 (58.3%)	203 (61.3%)	52 (26.4%)	30 (31.3%)	16 (22.2%)	98 (26.8%)
학생 자율 무시	19 (12.3%)	8 (6.8%)	6 (10.0%)	33 (10.0%)	89 (45.2%)	51 (53.1%)	36 (50.0%)	176 (48.2%)
학부모 협조 부족	25 (16.2%)	14 (12.0%)	5 (8.3%)	44 (13.3%)	35 (17.8%)	7 (7.3%)	14 (19.4%)	56 (15.3%)
기타	25 (16.2%)	12 (10.3%)	14 (23.3%)	51 (15.4%)	21 (10.7%)	8 (8.3%)	6 (8.3%)	35 (9.6%)
계	154 (100.0%)	117 (100.0%)	60 (100.0%)	331 (100.0%)	197 (100.0%)	96 (100.0%)	72 (100.0%)	365 (100.0%)

* $\chi^2=11.609$ $df=6$ $p=.071$

* $\chi^2=8.298$ $df=6$ $p=.217$

표 2-14. 조망수준별 교사와 학생의 학교붕괴 해결을 위한 대책

	교 사				학 생			
	조망확대	조망축소	무 조망	계	조망확대	조망축소	무 조망	계
현 교칙준수 및 실천	48 (31.0%)	56 (48.3%)	21 (35.6%)	125 (37.9%)	53 (26.9%)	12 (12.6%)	15 (21.1%)	80 (22.0%)
현 교칙수정 및 촉구	90 (58.1%)	45 (38.8%)	31 (52.5%)	166 (50.3%)	124 (62.9%)	71 (74.7%)	40 (56.3%)	235 (64.7%)
잘 모르겠다.	17 (11.0%)	15 (12.9%)	7 (11.9%)	39 (11.8%)	20 (10.2%)	12 (12.6%)	16 (22.5%)	48 (13.2%)
계	155 (100.0%)	116 (100.0%)	59 (100.0%)	330 (100.0%)	197 (100.0%)	95 (100.0%)	71 (100.0%)	363 (100.0%)

* $\chi^2=10.533$ $df=4$ $p=.032$ * $\chi^2=14.382$ $df=4$ $p=.006$

엇이라고 보는지를 알아보았다. 표 2-13은 교사와 학생집단에서 조망수준별로 학교붕괴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제시한 것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붕괴의 원인 지각에서는 교사와 학생 두 집단 모두에서 조망수준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붕괴해결을 위한 대책에서는 두 집단 모두에서 조망수준에 따른 효과가 나타났다.

표 2-14는 교사와 학생집단에서 조망수준에 따른 학교붕괴 해결 대책에 대한 응답을 제시한 것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교사집단의 경우 조망확대집단이나 무 조망집단은 조망축소집단에 비하여 학생입장에서의 대책(현 교칙수정 및 촉구)을 더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집단 역시 조망확대집단이나 무 조망집단은 조망축소집단에 비하여 교사입장에서의 대책(현 교칙준수 및 실천)을 더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조망축소집단에 비하여 조망확대나 무 조망 집단은 반대 입장에서의 대책을 더 잘 수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극복해야 할 핵심 주제로 진로문제에 대한 학부모의 학력주의 교육관 해소 및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의 신뢰회복의 문제를 세대간 가치관의 차이와 극복의 관점에서 두개의 연구를 통하여 다루었다. 연구 1에서는 먼저 진로문제에 대하여 부모와 자녀 세대간의 학력주의 성향의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부모세대는 현실 조망을 가지고 진로문제를 판단하는 반면 자녀세대는 현실과 미래를 모두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망수준이 높은 사람은 조망수준이 낮은 사람들 보다 학력주의 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문제에 관한 학력주의 성향은 기성세대가 현실에 구속되어 미래지향성 가치나 조망을 판단에 잘 활용하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연구 2에서는 교사와 학생들 간의 상호 신뢰 지각에서 세대간 차이가 나타났다. 첫째, 교사/학생 간 상호 신뢰가 대립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사와 학생들이

서로 자신의 입장에 따라 유리한 방향으로 편향된 신뢰지각을 하고 있었다. 특히, 학생들은 교사보다 평소 학생들이 교사들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지각함으로써 교사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둘째, 학교붕괴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인식에서도 세대간 차이가 드러났는데 교사는 교사의 권위 실추를, 학생은 학생의 자율성 무시를 주 원인으로 보았으며 교사는 학교붕괴의 해결을 위하여 학생들이 교칙을 철저히 지키고 실천할 것을 학생들 보다 더 원하는 반면 학생들은 교칙을 현실화하고 수정할 것을 교사들 보다 더 촉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세대간 인식차이를 보이는 원인으로서는 교사는 규율지향성 가치를 학생은 자율지향성 가치를 선호함으로써 가치갈등 관계에 있음이 밝혀졌다.

한편 규율가치와 자율가치 조망수준이 모두 높거나 상대방의 가치 및 조망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들(조망확대집단)은 한 쪽 가치에 구속되어 조망이 축소되어 있는 사람들(조망축소집단)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교사/학생간의 상호신뢰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망확대집단은 조망축소집단에 비하여 자신의 입장에 편향된 방향으로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이해하는 경향이 감소하였다. 특히, 학생집단의 경우 조망확대집단은 무조망 집단에 비하여 교사행동의 정당성과 이해차원을 분화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망확대집단이 반대 입장의 잘 잘못(부당성과 정당성)에 대한 이성적 판단과는 독립적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해와 수용성은 갈등해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해를 통해 반대 입장의 대안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문제해결도 더 쉬워질 개연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수원과 박광엽(1989)의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는데 연구결과, 조망확대집단이 조망축소나 무조망집단과는 달리 상황에 따른 태도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다. 즉, 학생의 복장으로서 '질서'가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교복'이 더 좋다고 판단하지만, '개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사복'이 더 좋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망확대집단은 무조망 집단과는 달리 단순히 태도가 중립화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적합성 혹은 문제해결을 염두에 두고 태도 중립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조망확대집단이 학교붕괴의 대책으로서 반대 입장의 주장을 조망축소집단보다 더 잘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망확대집단과 무조망집단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태도 중립상태에 있는 두 집단의 특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앞서 논의를 따른다면 두 집단 간 수용의 성질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가상의 교실붕괴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에 대한 정당성과 이해를 피험자들에게 물었을 때, 학생집단에서 조망축소집단과 무조망 집단에 비해 조망확대집단이 두 판단차원을 독립시키고 있는 것을 상기한다면 조망수준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시비판단'보다는 '대안판단'에서 나타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 교육현장에서 구성원들 간의 세대 차에서 빚어지는 갈등의 문제는 '시비'를 가려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다양한 시각에서의 '대안'들

을 가지고 무엇보다 ‘문제해결’의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세대의 가치가 옳고 어떤 세대의 가치는 그르다는 주장보다는 대립적으로 보이는 가치들이 어떤 상황에 적합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서론에서 연구자가 지적했듯이 우리 교육현장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학력주의 교육관은 학부모들 뿐 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깊이 뿌리내려 있다. 심지어 젊은 세대라도 사회적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그 가치 및 조망에 구속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학력주의 태도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학력주의 극복을 위해서는 좀더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가지고 교육이나 개인의 진로 혹은 발달의 문제를 이해함으로써 조망을 확대해야 한다. 앞으로 미래에는 학력이 능력을 평가하는 하나의 속성에 불과하며, 그 밖에 많은 기준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깨닫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구성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현재 경직되어 있는 학교교육과정이나 학교시스템 및 학교와 일의 세계와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들이 구안되고 실천될 것이다.

한편 학교붕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사·학생 간의 상호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사가 학생들의 자율이 더 요구되는 상황에서 교사자신의 입장에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규율이나 통제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양자간의 불신은 쌓일 수밖에 없다. 학생 역시 규

율과 질서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율만을 고집한다면 마찬가지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교사가 조망을 확대하여 학생에게 상황에 따라 자율과 규율이 적절히 적용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주고 습득케 한다면 학생들은 새로운 가치체계와 지식을 발달시킬 것이고 교사의 권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사회적 지식은 물리적 지식과는 달리 사회적 입장이나 이해관계의 맥락에 놓여 있으므로 논리수학적인 지식의 발달이 완성되어 있는 성인들이라도 자신의 입장이나 그 입장에서 유래하는 가치에 구속된다면 조망축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나타나는 고정관념이나 편견 역시 이러한 사회적 지각의 오류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은 변화이다. 청소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기성세대들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 자기 입장에서 벗어나 다른 세대가 지향하는 가치를 수용하여 새롭고 통합된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조망을 확대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우리의 교육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이 연구는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세대간 갈등과 해소 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려는 의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제한점이나 추후 연구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연구는 교육문제를 주로 개인 인식차원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사회나 제도적 차원의 원인 분석이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우리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제도의 변화와 인식의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볼 때, 본 연구에서 시사하고 있는 교육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방향을 기초로 사회제도나 교육정책에 대한 분석이나 개선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 자료들은 개인의 가치나 태도 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현실적 갈등 상황을 유발하려 했기 때문에, 시나리오나 지문의 가치 편향성을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세대간 차이에 대한 세대간 관계를 다양한 대상 및 주제 아래 향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동훈 (2001). 한국의 학벌, 또 하나의 카스트인가. 서울: 개마고원.
- 김명언 등(2000). 청소년과 성인간의 세대차이와 유사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181-204.
- 김민(2000). 학교붕괴: 신화인가 현실인가? 한국교육인류학회. 교육인류학 연구, 3(2).
- 김태준, 이수원(1992). 사회적 갈등에 대한 지각에서 입장개입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2), 29-42.
- 김태준(1996). 성 역할 지각의 발달: 범주 주도적 지각에서 특성 주도적 지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9(2), 30-49.
- 김태준(2003). 실업계 고교 재학 및 졸업생의 진로 의식 탐구. 한국교육, 30(1), 347-366.
- 신현숙, 이해경(2000). 교사 권위에 대한 개념의 발달과정 : 하위 영역별 차이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4(3), 99-120
- 신현숙(2003). 학교규율에 관한 학생의 개념화 : 교사 권위에 대한 태도, 언어능력, 지각된 교실 풍토와의 관계. 교육학연구, 41(1), 111-137.
- 이성호(2002). 교육과 신뢰. 한국 사회 신뢰와 불신의 구조: 거시적 접근. 소학출판사.
- 이수원 등(1988). 평가차원에서 기술차원으로: 태도차원의 변형생성과정. 사회심리학연구, 4(1), 155-181.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 이수원, 박광엽(1989). 조망의 확대와 평가의 보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4(2), 33-49.
- 이수원, 박영석(1988). 평가차원에서 기술차원으로: 태도의 변형 생성 과정. 사회심리학연구, 4(1), 155-181.
- 이수원(1993). 사회적 갈등의 인지적 기제: 사회적 자아중심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2), 1-23.
- 이수원 등(1996). 정적과 부정적 감정이 부재하는 중립태도와 공존하는 중립태도에서의 인상형성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0(2), 49-68.
- 이정표(2001). 국민의 학력관에 나타나는 학력의 사회적 함의에 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1(1), 55-75.
- 이종각(2000). 21세기와 학교와 교실,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교육과정평가원 창립 2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 학교학습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조용환(2000). 교실붕괴의 교육인류학적 분석 학교문화와 청소년문화의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인류학회. 교육인류학연구, 3(2).
- 조혜정(1999). 청소년 문제에서 청소년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한국의 근대화와 청소년의 주체 형성, 왜 지금 우리는 청소년을 이야기 하는가? 청소년과 근대성, 연세대 청년문화센터. 한국교육개발원(2000). 학교교육 위기의 실태와 원인 분석.
- 한국교육개발원(2001). 학부모 학력주의 교육관 타파 방안 연구.
- 한국청소년개발원(1999). 학교붕괴실태 및 대책연구.
- Bengtson, V. L., & Kuypers, J. A. (1971). Generational difference and the developmental stake.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 249-260.

- Giarrusso, R., Stallings, M., & Bengtson, V. L. (1995). The "Intergenerational Stake" hypothesis revisited. In V. L. Bengtson, K. W. Schaie, & L. M. Burton (Eds.), *Adult intergenerational relations* (pp.227-263). New York: Springer.
- Hundeide, K. (1985). The tacit background of children's judgement, In J. V. Wertsch, et al. (Eds.), *Cultur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Vygotskian Perspectives*. NY. Cambridge Univ. Press.
- Kertzer, D. I. (1983). Generation as a sociological problem. In R. H. Turner (Ed.),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9 (pp.125-149). Palo Alto, CA: Annual Reviews.
- Piaget, J. (1928). *Judgement and reasoning in the child*.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The conflict and resolution between the generations in Korean Education

Taejun Kim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This study was to explore how to overcome student career-related issues that face Korean education focusing on resolution of academic background-centered education parents prefer and recovery of teacher-student mutual trust in school in terms of generational gap in values and its remedy by using two research methods. The first research examined a tendency of academic background centered educational preference and the level of perspective to look at the issue against parents and their children. The result indicated that the tendency was stronger in parents than in children. Furthermore, such tendency was associated with reality-oriented value and perspective construction of prospect. Hence, it reveals that academic background-centered educational preference of parents can be reduced when parents' perspective gets scaled up by future-oriented value contrary to the value that older generation has believed. For the second research, recognition of teacher-student mutual trust and class demise and the level of perspective to look at the issue were measured. The results showed that distrust of students in teachers was more serious than distrust of teachers in students. Mutual trust or understanding was low especially when students are stuck in self-regulation-oriented value and teachers are adhering to discipline oriented value. However, mutual trust or understanding increases when they expand their perspectives by admitting each other's values. Under this circumstance, they were willing to accept alternatives for each other, and they had a tendency to regard generational conflicts not as a problem of right and wrong but as alternatives or problem-solving.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normalization of Korean education depends on mutual acceptance of different values between generations and magnification of prospect to look at educational issues.

Keywords: Generational Gap, Mutual Trust, Perspective, Academic Background centered Preference, Class Demise